



<한국경영학회>

한아세안 포럼의 운영방향과 과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문제:영점조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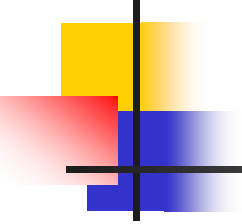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운영위원장

김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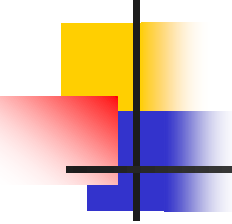
아세안의 성장과 기회(opportunity)

1.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 태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보이고 동산에 올라가면 마을이 보인다.
2. 10%이상 성장하고 싶은가? 그러면 아시아로 가라.
- 소상공인 해외창업시대를 열자



사자가 배고프면 하늘을 쳐다본다— 먹잇감 찾기

- 사자가 배고프면 하늘을 쳐다본다—**일본,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독수리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 그곳에 먹이가 있다. 일본 중국이 ODA사업 등으로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
-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 이제 아세안, 중국, 인도가 보물이다.
 - (중국, 9.5%, 인도 9.8%, 아세안 6.5%, 중동 10.8% 성장전망, 2015-KPMG, 아시아개발은행)
- 아세안에서의 부자는?
 - 의식주산업 기업이다.—의류, 음식점, 빵회사, 미장원, 건설회사...
 - 신흥국일수록 쉽게 돈 번 사람들이 많다—아세안의 의식주시장은 고급문화시장이다(한류블루칩국가 있다)
- 소상공인 해외창업시대를 열자
 - 의식주-소상공인 해외창업은 1개월이면 가능하다(기업진출은 3년 걸린다—특히 첨단기업은 설립인가가 무척 어렵다)
 - 미얀마의 부자들—옛날에 잘 살아본 경험+ 신흥부자들의 사치—돈을 잘 쓴다.
-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중국 vs 미국, 일본
 -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재선이 확정된 이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를 **먼저 방문**했다.
 -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일본, 인도, 나아가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 아베의 4번째 아시아 방문 + 2015년 9월 중앙아시아 방문



서쪽에 보물이 있다.

:재미없는 지옥(동쪽) vs.재미있는 천국(아시아)

■ 아시아나이제이션

- 눈부신 아시아의 성장을 설명하는 아시아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즉 아시아시대(Asianization)가 오고 있는 것이다. 고로 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 대비하는 글로벌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아시아에 더욱 “린 인(Lean In.달려들어라)”하라는 주장처럼 중국과 인도에서만 10억여 명의 중산층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움직이고 있다.
- 이들 아시아 국가는 투자 위험성이 크지만 성장잠재력도 크다. 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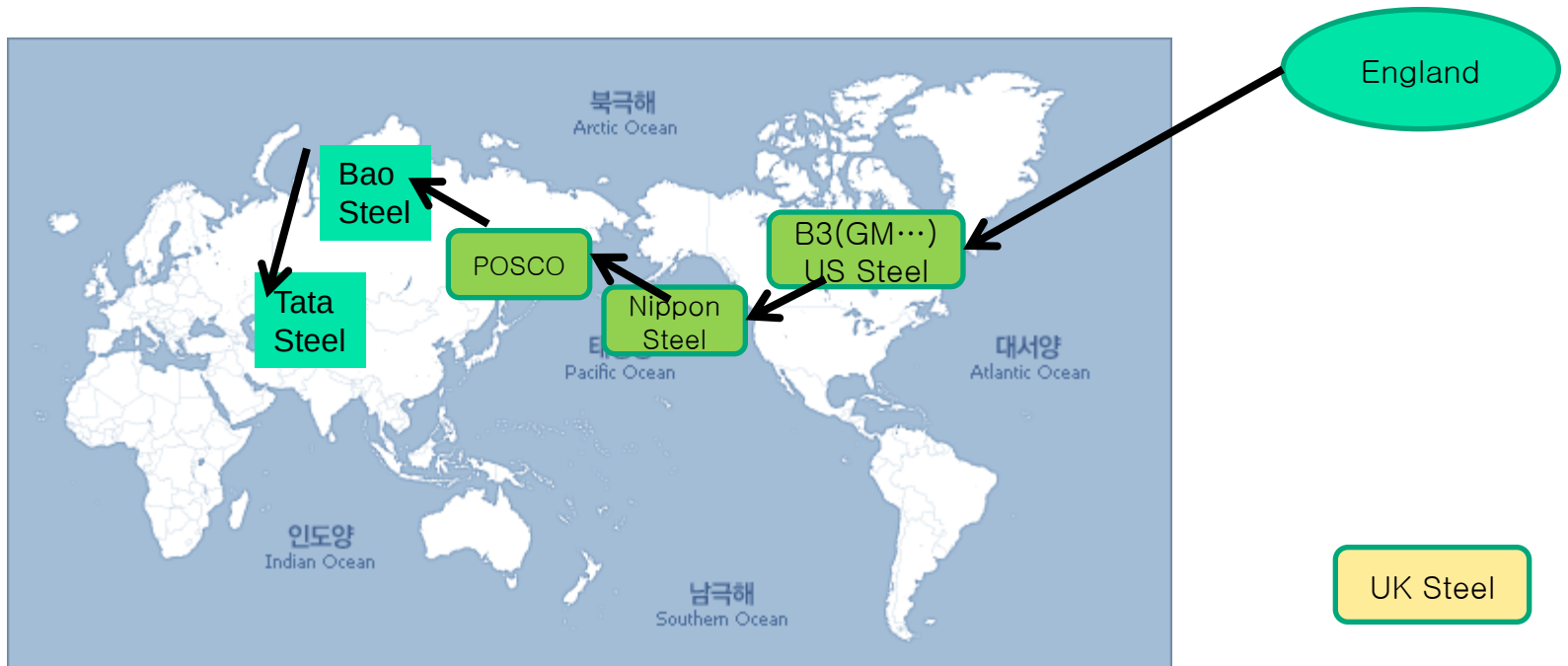
■ 아시아개발은행(ADB) 2014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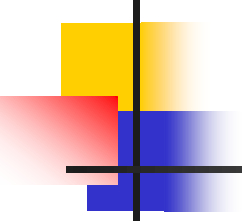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2030년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10~2030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의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6.4%예상

■ 보물찾기-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

-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주목해야 한다.
- 2000년대 이후 현대자동차는 인도,중국시장 개척에 성공한 것을 해외에서는 보물찾기(treasure hunting)에 성공했다고 불렀다. 이제 중소기업의 차례이다.

Marching west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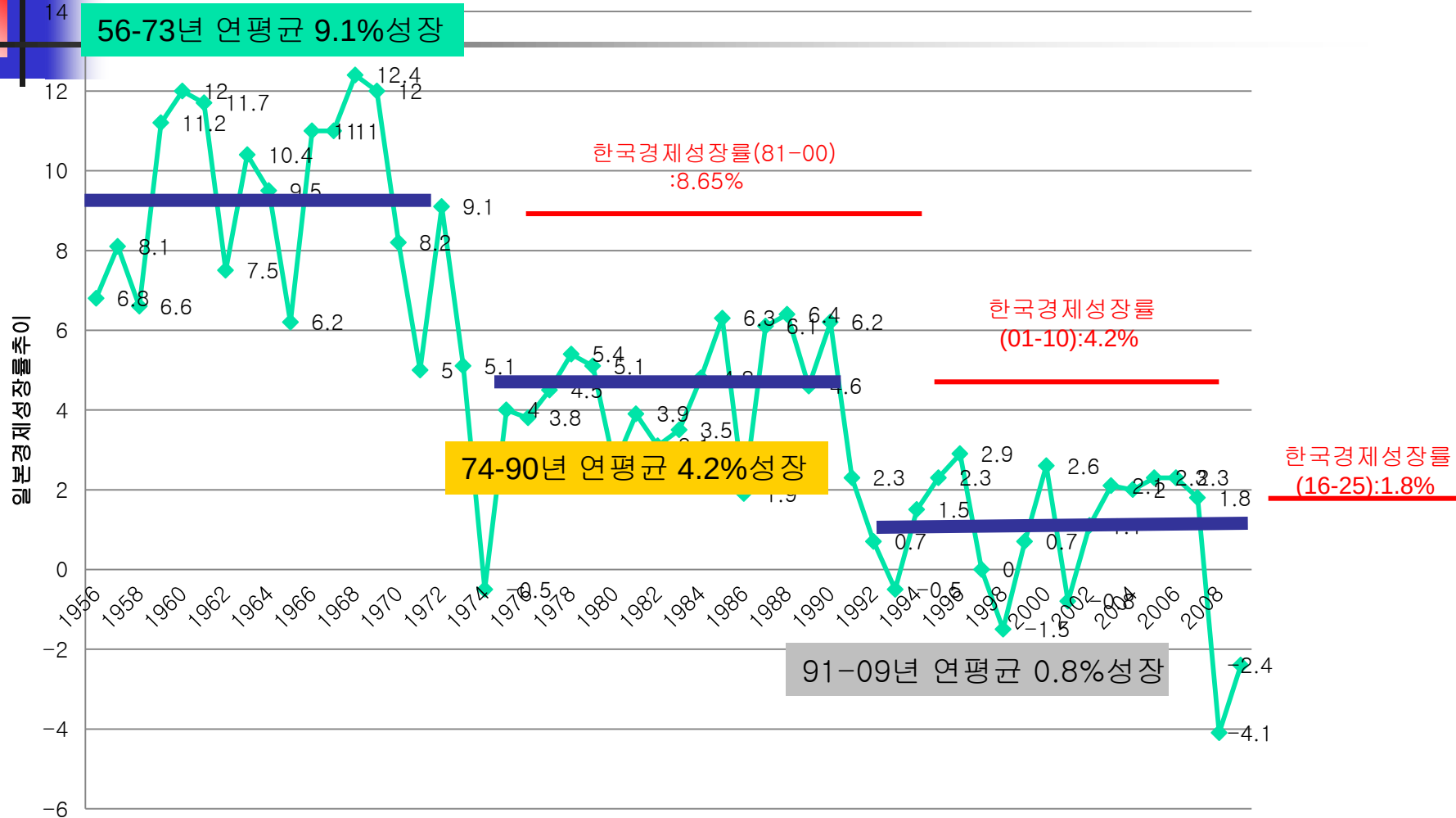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의 아세안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수출은 늘고 있다.

- 2015년 3월 수출입 각각 4.2%, 15.3% 감소 84억불 흑자(불황형 흑자)
- 한국: 미국과 중남미 수출만 늘고
 - 아세안 10% 감소,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수출은 급증하고 있다. 왜?)
 - 특히 석유제품, 컴퓨터, LCD 수출 급감
- 일본, 홍콩 등은 수출이 늘고 있다.
 - 달러베이스의 수출은 줄고, 엔화베이스의 수출은 늘었다(체감형 지표)
- 한국수출의 위기
 - 지난해 이미 원화로 표기한 수출은 감소—이제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표가 된다.
 - 2014년 총 성장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가 최저였다—원화로 표기하면 더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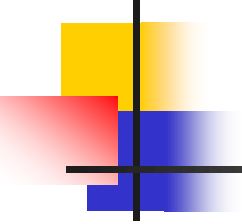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의 비교

1995년 일본경제의 오너스화 vs 한국 2015오너스 진입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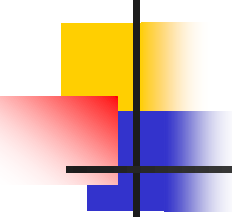
일본 내각부 자료 참조

Ki-Chan Kim



일본:1996년 vs 한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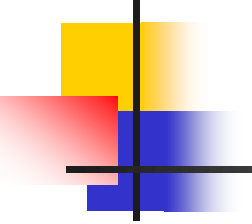
- 일본:1996년 일본 기업생태계의 오너스화 시작→잃어버린 20년의 시작
 - 창업자수<폐업자수—생태계의 오너스화
 - 막중한 책임 혹은 부담-. '인구(人口) 오너스 시대'
 - 갈라파고스화가 주범
- 한국: 올해 소상공인 창업자수<폐업자수—생태계의 오너스화 시작
 -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
 - 갈라파고스의 교훈을 얻어야



일본의 1995년—한국의 2015년

:고도성장기 비즈니스모델에 안주한 일본기업의 갈라파고스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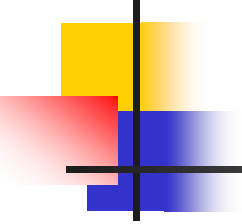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일본의 1995년: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의 변곡점—일본 갈라파고스 경제의 시작
 - 한국: 잠재성장률 10%(1980년대)에서 3%대로 진입(2015년)—끓어오르는 물속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
- 글로벌화 위기감부족—고도성장기 비즈니스모델에 안주하는 개구리현상
 - 고도성장기—많이 먹으면 성장하는 시기(요소투입기)—work hard—부동산투자가 돈 버는 방법
 - 혁신성장기—많이 먹으면 성인병—다이어트하면서 혁신해야 (혁신성장기)—work smart!—연구개발투자—글로벌시장창조가 돈 버는 방법
- 갈라파고스화
 - 갈라파고스; 찰스 다윈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을 방문하여 어떻게 적응하며 사는 지 조사하여 진화론 집필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한 곳
 - 일본의 제조업(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갈라파고스화 과정의 시작
 - 갈라파고스화 신드롬: 세계시장의 욕구와 국제 표준에서 제외
- 일본의 갈라파고스 경제
 - 고성장기를 믿고 따뜻한 고국의 품(따뜻한 물)에서 잃어버린 20년—갈라파고스화로 숨진 많은 국내형 일본 기업들
 - 일본 휴대폰 회사들이 자국산 접는 방식의 휴대폰에만 주력한 갈라파고스 현상의 결과



<중소기업의 문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갈라파고스화를 극복하라.

저성장기: 생산성의 시대에서 기회성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 지금까지 -열심히, 원가절감,생산성을 높이면 성공했다.
- 능력 있는 선수들 중 전국체전에만 출전하는 선수들은 돈 벌지 못한다.
 - 미얀마에 진출한 빵집-
 - 양곤에서 <파리지앵>이라는 빵집과 외곽에 <골든파크(Golden park, 한국식 찜질방과 사우나)>라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박구영 사장
 -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코리아 타운>이라는 한국식당을 운영하는 최정열 사장은 한류를 사업화에 잘 접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 전국체전만 나가지 말고 올림픽에 도전해라.
 - **올림픽 출전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 한국기업진흥의 분기점이 오고 있다.(1995)-교토식 경영(글로벌화)의 등장
 - 서쪽>동쪽
 - Value Chain and M & A>수출 그 자체
 - 핵심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의 Keystone이 되도록 하는 것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단계

- Globalization 0.0(1960--): 글로벌화 이전단계
 - 노동의 수출: 간호사, 광부, 건설노동자
 - 1965년 현대건설 해외최초진출: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수주
 - 1976년: 현대차 에콰도르 포니수출
- Globalization 1.0(1997--):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차)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한 단계—1차 금융위기가 대기업을 글로벌화시키면서 30대 재벌 중 14개가 문닫았다.
 - 이제 대기업은 저절로 글로벌화하고 있다.
- Globalization 2.0(2008--): 중견기업(효성, 한국타이어, 1차 벤더: 만도 등)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한 단계
 - 2차 금융위기 후 중견기업이 글로벌화하는 계기(STX등 문닫았다)
- Globalization 3.0(2012--): 중소기업(제네시스, BBQ, 카페베네)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한 단계
 - 이제 중소기업이 글로벌3.0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닫을 것이다.
- Globalization 4.0(2015--): 한국생태계의 오픈스화 시대
 - 소상공인의 해외 창업시대
- 자료: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대표



우리 기업의 문제 :기업가의 시대에서 관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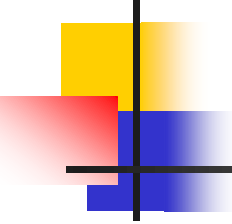
사내기업가정신운동이 필요:

- 기업가정신의 신사유람단 파견: 1990년대 삼성의 해외전문가프로그램의 성과가 삼성의 글로벌화에 큰 기여
- 중견기업의 아시아보물찾기클럽: '카이로스 기업가클럽' 운영

해외진출(High Risk)과 죄수의 딜레마게임

—기업가의 관리자화와 갈라파고스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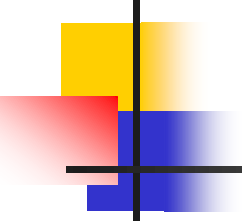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해외시장은 한국시장보다 훨씬 리스크가 크다.
 - 그래서 국내에서 죽어라고 싸우고 있다.→갈라파고스화
 - 기업가의 관리자화: 해외시장개척보다 위험이 적은(? , 끓는 물속의 개구리) 국내시장에서 관리강화(원가절감)에 치중
- 죄수의 딜레마처럼 변하고 있다.
 - 자원외교 수사: 글로벌화 게임상황에서의 내수균형 결과 게임참가자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 청년세대의 도전성약화
- 우리기업들은 너무 관리싸움을 하고 있다.
 - 제품경쟁,기술경쟁,가격경쟁에서 벗어나—관리자들이 영역이다.
- 기업가 vs 관리자
 - 기업가란 시장을 읽는 사람이다.
 - 관리자(Manager)란? 제품,가격을 관리하는 사람—



이제 제품경쟁에서 시장틈새창출(해외보물찾기)경쟁으로

(사내기업가정신의 신사유람단 파견
: 사내기업가가 해외창업/M&A의 꿈을 가지게 해라)

- 답은 Entrepreneurship이다.
 - 관리자 경영시대를 넘어 기업가 경영의 시대로 가야
- 시장경쟁으로 가야(사내기업가 및 해외창업/M&A)
 - 사내기업가가 꿈을 가지게 해라
 -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배신할 뿐이다.
- 사내기업가 육성
 - 기회를 포착한 사람에게 충분히 배상해라(1%)—목숨 걸고 하게 해라
 - 그런 기술 개발한 사람에게 충분히 배상해라—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가 한국이 꼴찌인 이유
 - turn them loose—사람들을 충분히 풀어주어라.
- 사내기업가정신의 신사유람단 파견
 - 해외보물찾기 신사유람단(사내기업가정신):회사 내에서 차출한 5명을 미얀마로 보내라



한중일 생산성싸움에서 기회성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

- 유교권이 부지런하다.—한중일 싸움?
- 한중일 내수시장이 아니라 아세안시장, 아프리카시장을 놓고 기회발굴게임을 하고 있다.
 - 한국이 성장하는 글로벌시장진출 기회를 포착 못하면, 중국, 일본이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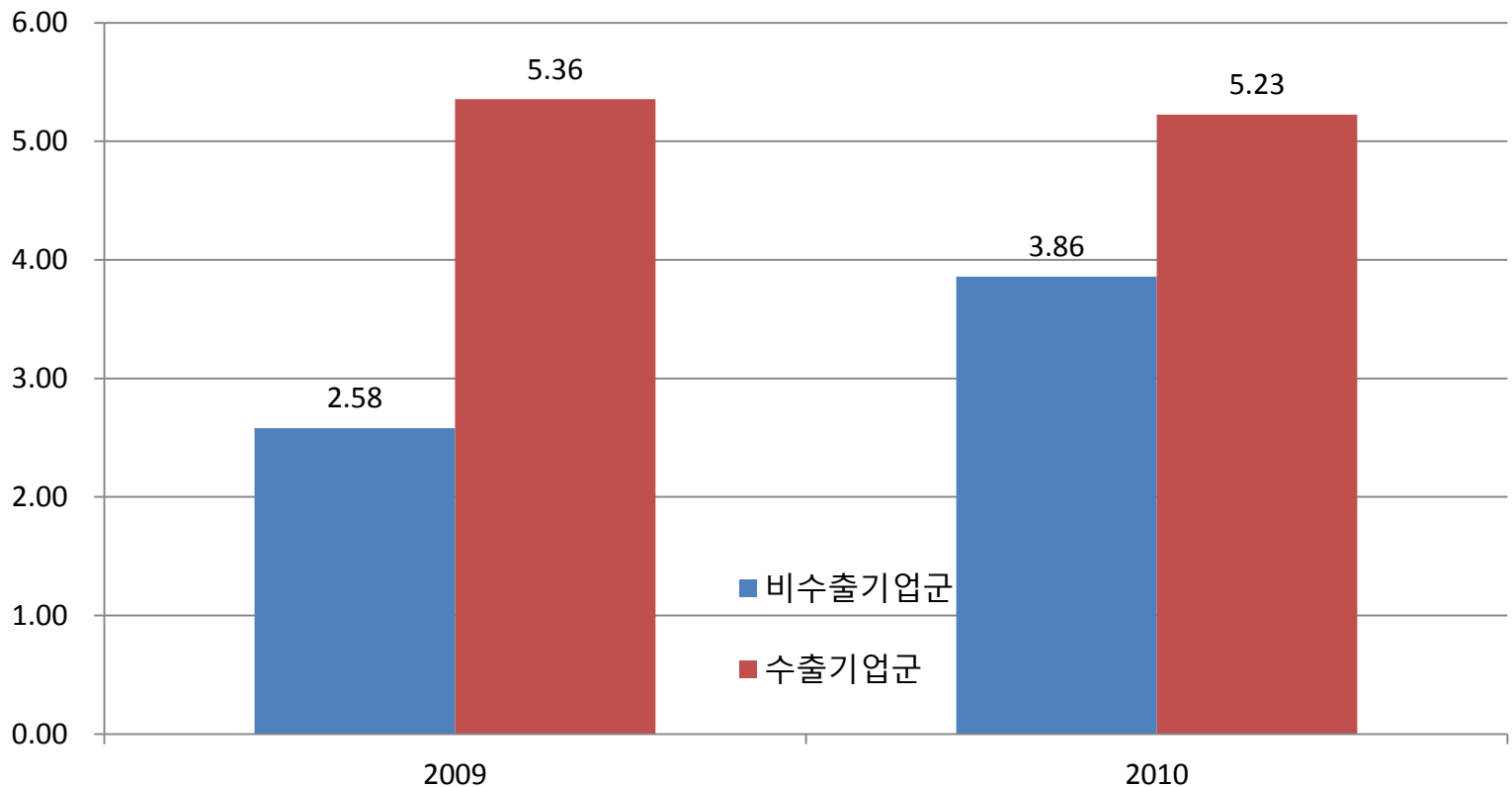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다음 신의 이름은?()

아드레날린 나오는 이야기

- "카이로스"(kairos: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기회의 시간,결단의 시간’이다.
 - 저울을 가지고 있는 천사
 - 저울은 정확한 판단을, 낮은 결단성을 의미
-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 카리로스 석상앞 문구
 -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기 위한 것이고
 -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쉽도록
 - 앞의 머리카락—쉽게 잡도록
 - 뒤의 대머리—지나가면 못잡도록
- 카이로스과 크로노스
 -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할아버지와 손자사이)
- 크로노스"(kronos).
 -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Chronicle(연대기)의 어원.
 -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결정되는 시간을 말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시간이다.
-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를 이기지 못한다.

수출기업과 비수출 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율(%)격차





<답은 서쪽에 있다>

아시아시대와 서쪽 행진전략

:첨단산업이 아닌 의식주산업(소상공인)+아세안시장에
서 한류블루칩국가(미얀마, 인도네시아--영어가능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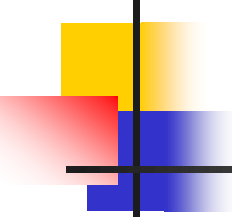


소상공인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화 말고는 대안이 없다.

:해외 취업시대에서 해외 창업시대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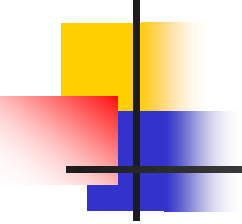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경영학회, 이제 국가경제에서 소상공인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소상공인 걱정 못한 것 좀 아쉽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 일자리가 없다→사회 안전망이 없다. 그래서 생태형 창업이다
 - 지난 10년간 소상공인 730만이 폐업했다. 3년 생존율이 50%,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
- 과잉—OECD에 비해 소상공인비율이 2배, 미국의 4배이다.미장원은 미국의 10배이다.
 - 미용사자격증은 100만 명중 20%가 개업.
 - 외식은 미국의 4배(한국이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나?)
- 정작 외국인관리는 냉탕과 온탕이다: 과잉대우와 엉망관리
 - 외국인 근로자도 173만 명 있다—25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이들은 관리도 못 받고 산재 1등인 이유이다



소상공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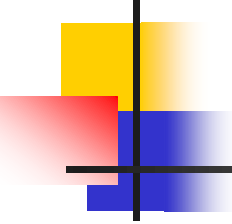
-소상공인 문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 한류바람
 - 필리핀 미장원—토니& 가이—커트비 3만 5천원
 - 뚜레주르 한국 빵집이 한국보다 2배 비싸다
 - 미얀마 빵집 성공사례—현재 10개 매장—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망했다—승마장도 가지고 있다(사업자 등록증 받기가 무척 어렵다)
- 그러나
 - 미얀마—우리나라 은행은 허가를 못 받았다(일본만 받음)
- 한국인의 DNA—위기에서 답을 찾다
 - 배부른 사자는 토끼도 못 잡는다.
-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자—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을 해외로 진출시키자.
 - 해외 취업시대에서 해외 창업시대로
 - 소상공인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그런데 관광체험상품정도에 불과



10년간 소상공인 730만이 폐업한 소상공인도 영점조준해라

- 개도국 아세안에는 ‘의식주’ 산업 및 소상공인이 돈 버는 경제이다.
 - 소상공인 아세안 진출의 시대로 가자.
 - 문화친화형 사업: 한류효과(김탁구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제빵왕을 기다리고 있다)
 - 시대흐름: 아세아
 - 국내 vs 해외: 내수 저성장기(국내에서 소상공인 육성책은 풍선효과이다. 전통시장 돈 벌면 구멍가게 죽고,...)
-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 아세안시장에서 한류블루칩국가-Marching westwards policy
 - (미얀마, 인도네시아--영어가능권)
 - ASEAN>BRIC(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 스탠-스탄을 거쳐 중동까지..
- 첨단산업이 아닌 의식주산업에서
 - 아세안에서의 부자는? 의식주산업 기업이다.
-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소상공인들이
- 해외취업, 해외 수출을 넘어 해외 창업으로
 - 외국에서 취업하던 시대→외국에서 창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 몽고에 100대 부자에 한국인 2명



아세안에서의 부자는? 의식주기업이다.→아세안 소상공인의 창업시대를 열자

- 경영학회+ 소상공인 연합회의 MOU
 - 6천만 경영학회 회원의 관심으로
 - 소상공인 해외창업시대를 만들어가보자.
 - 제일 먼저 미용사 아세안 해외 창업지원(?)
- 경영학회 한아세안포럼에서 아세안 소상공인의 창업시대를 열자.
- 미얀마,인도네시아와 한국학회의 외교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프로토콜에서 자유롭다.
 - 돈에서 자유롭다.
 - 영어가능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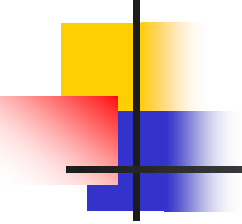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Window가 닫히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을 글로벌화도 해라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배신할 뿐이다.

Go West.

한류블루칩 아시아국가(미얀마)를 공략하라.

- 한류블루칩 국가가 어디인가?
- 베트남—교육열이 높고 부지런하다.
 - 미얀마대통령—6시 이후는 부인에게 말을 못 건넨다—한국 드라마 본다고
-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 한국에서 톱3 진입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톱 3위 하도록 아시아 시장을 먹어야 한다.
- 2014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발간한 한류백서에서는 2012년 기준 한류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한류성숙도 및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 한류블루칩 국가(고성숙도/저성장률)—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고,미얀마
 - 한류옐로우칩 국가(저성숙도/고성장률)— 미국, 독일, 영국 등 3개국
 - 한류그린칩국가(고성숙도/고성장률), – 홍콩과 캐나다 등 2개국
 - 한류화이트칩 국가(저성숙도/저성장률)— 한류화이트칩국가는 프랑스, 중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5개국으로 나타났다.
-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진 나라? 베트남,인도네시아?



미얀마의 한국제빵왕

-미얀마 90%가 저녁은 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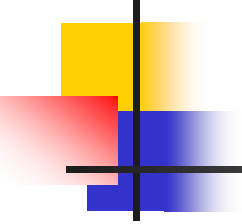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1만불시대--의식주 소상공인이 돈 버는 나라
- 미얀마
 - 저녁은 전부 외식하는 나라이다.
 - 김탁구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제빵왕을 기다리고 있다.
 - 최고급빵을 가격에 관계없이 먹고 싶어하는 시장이 엄청 큰 편
 - 파트너가 핵심이다.미얀마의 정주영 같은 사람—상원위원장
 - 아세안(미얀마 등) 유학생을 우리의 글로벌화 인력자원으로(일본의 사례)
- CJ홈쇼핑사례-인도네시아—CJ홈쇼핑 매출 3조 중 1조가 해외이다(?)—앞으로 늘어갈 것
 - 홈쇼핑은 방송사를 잡고 있어야 한다.
 - 인니 합작회사 -한국제품 약간만 튜닝해도 잘 팔린다.—이제 멕시코, 남미로 가자.
 - CJ이재현회장—방송사네트워크를 잡고 있는 큰 자산
- 이란—주몽 시청률 82%--송일국 프린스이다.
- 인도네시아
 - 한국형 PC방이 뜨고 있다.

한류블루칩국가에서 의식주창업

		한류화이트칩국가	
Cultural Distance	Hi	Geographically close Culturally far	Geographically far Culturally far
	Low	Geographically close Culturally close	Geographically far Culturally close
		Low	Hi
		Geographic Distance	
		Creative Economy : Seeking Opportunity and Lean -i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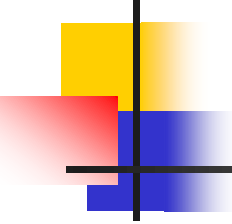
한류블루칩국가
-인도네시아

Yellow Chip-미얀마



사내기업가정신의 신사유람단 파견 성공사례

- '카이로스 기업가모임'만들어 영웅만들기 필요
 - 미얀마의 대동공업
 - 전기점창업도 성공할수 있다.
 - 불고기브라더스 미얀마점
- '카이로스 기업가클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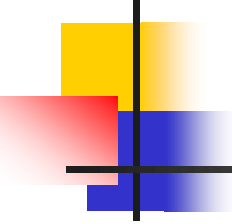


소득 1만불시대 부자는 의식주기업이다.→이제 의식주
소상공인들이 아세안에서 해외창업하는 시대를 만들자.

<A회사의 매출>

	국내시장	해외시장
에너지사업	매출비중()%	매출비중()%
환경사업	매출비중()%	매출비중()%
비에너지 생활에너지 (의식주)사업	매출비중()%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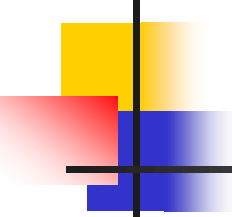
미얀마에 신
사유람단 파
견--의식주
산업 창업



1차 한아세안 포럼 연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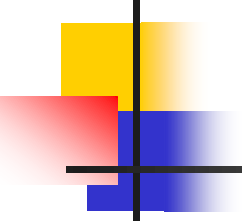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이 제 1차 한아세안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 1차 한 아세안 포럼 개최>
- 우선 제 1차 한아세안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장소: 프레스 센타(서울시청옆) 8층 한아세안 센터 회의실--20여명 참석가능
- 발표주제: '한국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서 본 글로벌화의 시급성
- 발표자: Fiona Sussan교수
- University Research Chair
- Center for Global Business Research, Founder, School of Advanced Studies
- University of Phoenix

- 시간: 4월 16일(목) 아침 7시 30분
- 주요 참석자: 임채운 경영학회 회장, 김영선 한아세안 센타 사무총장(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국무역협회 박귀현 아주실 실장 등
- 아침은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님이 준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한국경영학회 회장 임채운
- 한아세안 포럼 운영위원장 김기찬(가톨릭대) 드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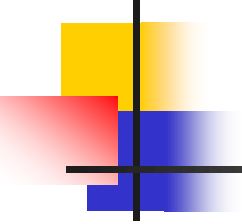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정부의 지원(ODA), 기업인의 관심, 경영학회의 메가시너지로 아세안시장으로 가자

- ODA는 컨테이너, 콘텐츠는 Global Value Chain으로
 - 수출에서 Global Value Chain으로
 - ODA는 컨테이너, 인프라지원 사업
 - 중소기업기업은 해외보물찾기해라
(이제 중소기업기업도 카이로스경영시대를 열어야 한다)
- 해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자.
 - 현지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어려움—한국인이 현지 사업자 등록증을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한국은 외국인에게 지원하면서—외교적 쌍방 쿼타확보 교섭노력이 필요.
 - 은행지원생태계구축
- 혼자 진출은 외롭다.—협회차원의 글로벌화(점-선-면의 글로벌시대)
- 현대자동차 해외진출은 green field전략이다(아예 협력업체들과 한국동네를 하나 만든다)
- 일본은 외로워 글로벌화가 재미가 없어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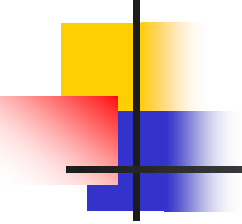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경영학회-소상공인연합회간 해외진출지원 MOU만들자.

- 해외취업시대—해외창업시대로
 - 베트남에 공장 짓는데 5년 걸리지만 빵집은 1달만에 오픈이 가능하다.
 - 몽골 100대 기업 중 2개가 한국인
- 취업자간 메가시너지를 내는 체제로
 - 진출 한국기업간 서로 지원체제
 - 아프리카 10개 기업이 동시에 진출시도
- 미용인 해외 창업 펀드—경영학회—벤처투자펀드로 확대
- 중소기업지원 플랫폼은 누구인가? 중진공의 역할은?
 - 점의 시대→선,면의 시대: 한국인 업종간 메가시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 한인 무역협회 옥타와 코트라 메가시너지가 나고 있는가?
 - 코트라+ 수출인큐베이터와 시너지가 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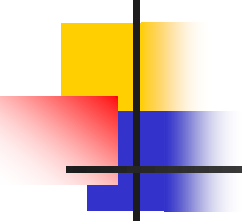
'한아세안 포럼

- 한국경영학회 회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한국기업의 아세안진출과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경영학회에 한아세안포럼을 운영코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한아세안포럼 출범의 배경
 - ○ 한국경제는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없이 더 이상 경제와 기업성장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87%수준의 높은 내수시장 매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수의존도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저하하면 기업생존의 어려워진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중소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문제이다.
 - ○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기술개발 투자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은 2012년 13.62%에서 2013년 9.31%로 4.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창조에 성공하고 시장화에 실패하는 '창조성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에 과대하게 기대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시장 개척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처럼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빠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에 촉매제가 되는 포럼을 출범하고자 한다.
 - ○ 세계 경제는 특히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높은 잠재 경제성장을 때문에 기업성장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4년 보고서와 KPMG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잠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의 시대(Asianization)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가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글로벌화 노력이 필요하다.
- 2. 운영방법
 - 한아세안 포럼은 공개포럼과 연구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간의 제약으로 20명이내로 매월 조찬으로 진행하는 연구위원회와 연 2회 정도의 한아세안 포럼은 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4월 연구위원회는 한아세안 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5월 이후에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무역협회 공간에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회 회원, 포럼회원 50여명

- 연구회 회원
- 1.임채운 경영학회 회장 2.김영선 전 인도네시아 대사(한 아세안 센타 사무총장)
- 3.매경경제신문 서양원부장/장용승차장(아시아담당책임)
- 4.블랙야크 강태선회장 5.무역협회 장호근 본부장
- 6.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7. 서울여대 이종욱
- 8. 박혜린 무역협회 부회장(옴니시스템 대표) 9.한상만 성대교수
- 10.송혁준 중소기업학회 회장 11.서울대 이경목교수
- 12. 고려대 박광태교수(중소기업학회 차기 회장) 13.한성대 주영혁교수
- 14.연세대 이지만 교수 15.연세대 임일교수
- 16.전경련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 17.한성대 강명수
- 18.송실대 박주영 19.자동차공업협회 국제담당 김태년이사
- 20.김창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정책국 국장
- 21..김기찬-가톨릭대 교수
- 22. 발표자—Sussan
- 23. 이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2차 한 아세안 포럼 >

- 일시: 5월 8일(금) 7시 30분
- 장소: 삼성동 무역협회
- 발표자: 김창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정책국 국장—통상정책과 글로벌전문기업화(안)
- 박혜린 무역협회 부회장—‘소상공인 아세안 진출전략’(안)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배신할 뿐이다.

